

세계 52개국 호남 향우들 추석 담양 방문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300명 세계호남인의 날 참석
재경 광주전남향우회는
전남도정 투자설명회 참석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원 초청 도정 설명회가 27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대화 향우회장, 회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미국·유럽·필리핀 등 세계 15개국 호남 향우 300여명이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다. 또 서울 호남향우들은 나주에서 고향 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간 광주와 담양, 전북 전주 등에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주관으로 고향 방문 행사가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이동수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과 김원봉 중국대런 호남향우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추석과 연계해 지난해보다 100여명 더 많이 고향을 찾는다.

총연합회는 세계 24개국 52개 호남향우회 대표자 모임으로 지난 2013년 출범했다. 모국과 재외동포 사이 가교역할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담아 개천절과 세계인의 날 중간날인 10월4일을 '세계 호남인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고향 방문 행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펼쳐진다.

방문 첫날에는 전북 무주를 방문하고, 둘째날 오전 담양의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길을 둘러본 뒤 점심식사를 하고, 전북 전주로 이동해 르윈호텔에서 '2017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을 연다. 마지막 날인

3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무등산 등을 탐방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친다.

호남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15년까지 서울에서 열렸지만, 지난해 호남권 3개 시장·도지사 모임인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호남에서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남에 이어 올해는 전북에서 열게 됐다.

선경의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세계 호남향우회는 앞으로 중화권의 화상(華商) 같이 세계 각지에 있는 호남출신 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투자유치와 관광, 수출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들의 전남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

다"고 말했다. 전남도 초청으로 고향을 방문한 재경 광주전남향우 100여명은 27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전남도정 및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등 도정 주요 시책 등을 소개하고 귀농·귀촌 안내, 도지사 권한대행과의 대화 등이 진행됐다.

설명회에 앞서 향우들은 장성 축령산 편백숲과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등을 둘러봤다.

향우회에서는 전남지역의 유능한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인재육성 장학금 300만

원을 전남도에 기탁했다.

김대화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은 "향우들에게는 고향 발전이 가장 기본 소실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도민들의 노력에 향우들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등을 돌아보면서 느꼈듯이 요즘 전남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다"며 "향우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전남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0월26일 재부산·재경남 향우회원 초청 도정설명회를 여는 등 출향민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소통도정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벨문학상 수상자들 11월 광주 온다

문화전당, 1~5일 2017문학페스티벌 개최

조직위원장에 고은 시인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 세계 문화계 거장들이 오는 11월 광주를 방문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2017 제1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개최할 방침이다.

'2017 제1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행사는 ACC가 아시아와 세계의 문학계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 아시아 인문학의 실질적인 지식 보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ACC는 연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은 시인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 행사를 준비해 왔다.

ACC는 '아시아문학상'을 제정하는

한편, 페스티벌을 통해 아시아의 문학 연구와 아카아빙 등 ACC의 콘텐츠 창작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거장들과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 저명작가들, 국내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ACC 관계자는 "세계 문학계의 거장들이 대거 참석해 세계와 문학을 관통하는 심도 있는 강연과 좌담 등이 진행될 계획"이라면서 "ACC가 세계를 문학으로 잇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청 문학가와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10월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추석 코 앞인데... AI 주의보

경북 영천 야생조류 분변서 AI 바이러스 검출
전남도 등 특별방역대책...귀성객 등에 협조 당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재발생과 구제역 유입 차단에 주력하는 추석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 마련, 귀성객과 지역민들에게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경북 영천시 입고면 양향교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다. 해당 시료는 지난 13일에 채취됐으며 검사 결과 'H7N7' 타입 AI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28일께 검사 결과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검출된 H7N7 형이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저병원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고병원성 AI는 올해 6월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419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가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명 피해 가능성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농축산부는 행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오리사육농가에 대한 사육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만큼 예년보다 방역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대책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 특별방역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민약 의심축 발견 때는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없이 1588-4060)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미 정부, 북 은행 10곳 무더기 제재

중·러 등 국외 지점장 등 북한인 26명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차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본격적으로 이뤄진 첫 이행조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 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산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와 함께 기존의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 발표는 앞으로 중국의 대북은행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못 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미 정부는 앞으로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대북 군사옵션 선택해야 한다면 할 것"

트럼프 미 대통령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우선적 옵션은 아니지만 만약 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할 것이며 그것은 북한에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리아노 라호이스페인 총리와 의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2번째 옵션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군사옵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으며 미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그는 매우 나쁘게 행동

하고 있다"며 "그는 절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답이지 (김정은이 한 것과 같은) 공식 성명이 아니다. 대답"이라면서 자신과 김정은의 "말 폭탄"은 차원이 다를 것임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전임 행정부 대통령들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나에게 영망진창인 상태를 남겨주었다. 하지만 내가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명 피해 가능성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010-5236-745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